

‘용정(龍井) 로컬리티’의 형성과정*

—용정 공간의 형성과정과 사상·종교의 유입을 중심으로—

천춘화(千春花)**

〈차 례〉

1. 머리말
2. ‘용정촌’과 ‘명동촌’, 용정 공간의 형성과정
3. 학교건설운동과 민족교육 중심지로의 부상
4. ‘영국더기’와 ‘명동학교’, 기독교의 유입과 전파
5. 맺음말

【국문초록】

식민지시기 만주(滿洲) 조선인사회의 중심은 간도(間島)였고, 간도의 서울은 용정(龍井)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용정의 위상은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고 2000년대 들어 식민지말기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야 비로소 극히 제한적으로 인식되었을 뿐이다. 본고는 이러한 용정의 지역적 특성을 ‘용정 로컬리티’의 형성과정이라는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하였다. 공간적으로 용정은 19세기 말~20세기 초 ‘용정촌(龍井村)’과 ‘명동촌(明東村)’을 중심으로 점차 확장되면서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1900년대부터 시작된 학교건설운동은 용정을 만주 민족교육의 중심지로 거듭나게 하였다. 학교는 민족주의 교육의 중심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 수용의 주요 통로로도 작용하였다. 특히 명동학교(明東學校)는 북간도 기독교 수용과 전파의 중요한 근거지이기도 했다. 3.1운동 전까지의 용정은 민족의식과 기독교사상이 거의 동시적으로 유입되었던, 민족의 자주독립을 고취했던 교육·투쟁의 공간이자 민족 정체성의 장소였다.

[주제어] 용정, 용정 로컬리티, 용정촌, 명동촌, 민족교육, 기독교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6A3A01042723).

**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HK연구교수

1. 머리말

현재 중국의 동북지역을 지칭하는 지명으로서의 만주(滿洲)는 국내 학계에서 이미 고착된 용어가 되었다. ‘만주’하면 ‘만주국’을 떠올리게 되고 자연스럽게 식민지시기와 연결시킨다. 만주가 명확한 공간적 범주와 시기를 연상하게 하는 단어임에 반해 식민지시기부터 ‘만주’와 함께 사용되어온 ‘간도’, ‘북간도’, ‘서간도’에 대해서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다. 이중에서도 ‘간도’가 현재의 중국 연변지역을 지칭하는 말이라는 것은 알 수 있지만 ‘북간도’, ‘서간도’가 정확하게 어느 지역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드물다.

사실 이는 역사적인 시기에 따라 ‘간도’의 범주가 조금씩 달라진 것과 연관된다. 만주로의 조선인 이주가 시작된 19세기 말 경의 최초의 간도(間島)는 조선인들이 이주해 간 두만강 건너편을 지칭하는 용어였다. 이 시기 간도는 심상지리상 만주와 크게 구분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 이 지역과 압록강 건너편을 구분하기 위해 압록강 대안 지역을 서간도라 부르기 시작하면서 원래의 간도 지역을 북간도라 불렀다. ‘북간도’는 현재의 연변지역에 해당하는 연길(延吉), 용정(龍井), 화룡(和龍), 훈춘(琿春) 등지를 포함하는 지역이고 ‘서간도’는 압록강과 송화강 상류 일대인 신흥무관학교가 자리 잡고 있었던 삼원포 지역을 포함하는 집안(集安), 환인(桓仁) 등 지역을 일컫는 말이다.¹⁾ 만주국(滿洲國)이 건국되면서부터는 간도, 북간도, 서간도의 사용빈도가 낮아지고 대신에 만주, 북만, 남만 등의 단어들에 활발하게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북만, 남만의 범주에서 볼 때 서간도는 남만주의 일부이고 북간도는 북만의 남측 끝 또는 동만의 일부에 해당하는 지역이다.²⁾

본고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용정(龍井)은 위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간도/북간도에 위치하는 지역이다. 행정구역상으로는 현재의 중국 길림성 용정시의 기반이 되었던 지역이기도 하다. 현재는 용정시라는 하나의 독립된 행정구역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용정이 하나의 시(市)로 편입된 것은 1988년 6월

1) 현규환, 『한국 유이민사』, 어문각, 1967, 40쪽.

2) 천춘화, 『한국 근대소설에 나타난 만주 공간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26쪽.

의 일이다.³⁾ 대신에 식민지시기에는 간도성(間島省)⁴⁾ 연길현(延吉縣)과 화룡현(和龍縣)의 양쪽에 조금씩 편입되어있었다. 본고에서 살펴보게 될 ‘용정촌’은 연길현(延吉縣)에 소속되어 있었고 ‘명동촌’은 화룡현에 포함되어있었다. 연길현은 행정구역상 간도성 소속이었고 간도성은 연길현을 비롯하여 화룡현(和龍縣), 왕청현(汪淸縣), 훈춘현(琿春縣) 등 4개의 현으로 구성되어있었다. 본고에서 지칭하는 용정은 ‘용정촌’과 ‘명동촌’을 중심으로 하는 훗날 요정지역을 구성하게 되는 일대를 말한다.

용정 지역/공간 자체에 주목한 연구는 극히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 1920년대 용정의 중학교 설립운동을 통해 용정의 사회문화 환경을 개론적으로 고찰하고 있는 김태국⁵⁾의 연구가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외 캐나다선교회와 관련되어 이루어진 일부 연구들을 통해 용정의 일단을 살펴볼 수 있다. 용정 주재 캐나다 선교사들의 활동과 문재린 목사의 관계를 고찰한 문백관⁶⁾의 연구와 캐나다 선교사들이 설립하고 운영했던 제창병원⁷⁾에 대한 연구가 그것이다. 그 외 또 하나 용정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연구들로는 북간도 독립운동의 기념비로 평가받고 있는 ‘용정 3.13 시위’, ‘15만원 사건’ 등이다. 용정의 3.13 반일 시위는 국내에서 발생한 3.1운동의 여파를 이어 받아 용정을 중심으로 한 주변의 2만 여명의 조선인들이 3월 13일 용정의 서전벌(瑞甸大野)에 모여 진행한 거족적인 반일 시위로서 해외 반일 시위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로 기록되고 있다.⁸⁾ 이러한 대형 시위가 용정에서 발생하였음은 물

3) 전광하 편저, 『세월속의 룡정』, 중국 연길: 연변인민출판사, 2000, 7쪽.

4) 만주국 건국 전 만주지역은 흑룡강성(黑龍江省), 길림성(吉林省), 봉천성(奉天省), 열하성(熱河省) 이상의 동사성(東四省)으로 구획되어있었다. 그러다 1932년 만주국이 건국되고, 1934년 10월 새로운 성관제(省官制)가 반포되면서 행정 개편이 이루어졌고 원래의 동사성은 14개 성으로 세분화되었다. 14개 성은 각각 봉천성(奉天省), 민강성(濱江省), 길림성(吉林省), 용강성(龍江省), 삼강성(三江省), 간도성(間島省), 안동성(安東省), 금주성(錦州省), 열하성(熱河省), 흑하성(黑河省), 흥안동성(興安東省), 흥안서성(興安西省), 흥안남성(興安南省), 흥안북성(興安北省)이다(解學詩, 『偽滿洲國史(新編)』, 中國 北京: 人民出版社, 2008, 237쪽).

5) 김태국, 「1920년대 용정의 사회 문화 환경과 중학교 설립운동」, 『송실사학』 25, 송실사학회, 2010.

6) 문백관, 「1920년대 이후 용정 주재 캐나다 선교사들의 활동과 문재린 목사」, 『동방학지』 180,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7.

7) 김승태, 「캐나다 장로회의 의료선교: 용정 제창병원을 중심으로」, 『延世醫史學』 제14권제2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사학과, 2011.

8) 윤병석, 「북간도 용정 3.13운동과 「조선독립선언서포고문」」, 『사학지』 31, 단국사학회, 1998; 안장

론 시위를 이끈 주체는 용정 각 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이었다는 점도 주목을 요한다.⁹⁾ 3.13 반일 시위에 이어 또 다시 간도를 발각 뒤집은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15만원 사건’이었다. 1920년 1월 4일, 윤준희(尹俊熙)를 비롯한 5명의 젊은이들이 일본의 조선은행 회령지점으로부터 간도 용정촌 지점으로 운송 중에 있던 일화 15만원을 탈취한 사건이다. 그들은 15만원을 독립운동자금(무기 구입)으로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결국 사건 발생 27일 만에 주동인물 3명이 일제당국에 체포되어 처형되고 자금은 거의 모두 회수되는 것으로 마감되었다.¹⁰⁾ 이렇게 1920년 전후는 북간도 독립운동사의 ‘최고봉’¹¹⁾을 장식했던 시기였다. 본고가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이러한 성과를 이룩할 수 있게 했던 용정의 사상·문화적 배경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용정이라는 공간적 특징에 주목하기보다는 용정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이나 용정에서 이루어진 선교활동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용정의 위상에 대해서는 거의 주목을 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 식민지시기 만주 조선인사회의 중심은 간도였고 간도의 서울은 용정이었다. 특히 1920년대 용정은 북간도 독립운동의 중심지였고 기독교 선교의 중심지였으며 나아가 간도 조선인사회의 중심지였다. 본고는 용정이 이러한 위상을 형성할 수 있었던, 그 기초를 다졌던 초창기 용정 공간의 형성과정에 주목하여 ‘용정 로컬리티’의 형성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면 관계상 본고는 우선 3.1운동 전까지의 용정을 대상으로 한정하고자 한다.¹²⁾ 이를 위해 『연변문사자료』(1988)와 초창기 용정에서 활동했던 김약연, 이동휘, 이상설 등 인물들의 인물전기, 그리고 『기린갑이와 고만네의 꿈』(삼인, 2006)과 같은 일부 회고록을 대상으로 용정 공간의 형성과정과 초기 용정의 사상·문화지리를 살펴볼 것이다. 이

원, 『용정 《3.13》 운동에 대한 탐구』, 『동포논총』 3, 경북대학교 채외동포연구소, 1999; 김주용, 『1920년대 전반기 북간도지역 학생운동의 양상』, 『한국근현대사연구』 51, 한국근현대사학회, 2009.

9) 김주용, 앞의 글.

10) 潘炳律, 『간도(開島) 15만원 사건의 재해석』, 『역사문화연구』 12,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00.

11) 최문식, 『반일 무장 독립 투쟁의 최고봉: 1920』, 『인문논총』, 경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6.

12) 본격적인 ‘용정시대’는 1920년대라고 할 수 있다. 심사의견 중에도 1920~30년대의 용정을 다루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필자 역시 이에 동의하는 바이지만 지면 관계상 본고는 3.1운동 전까지만 한정하였다. 1920년대, 30년대의 용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별도의 지면을 통해 다룰 예정이다.

러한 접근은 용정이 북간도 독립운동의 중심지, 선교활동의 요충지로 거듭날 수 있었던 근원적인 원인을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나아가 지금까지는 알려지지 않았던 용정 공간의 형성과정을 자세히 조망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2. ‘용정촌’과 ‘명동촌’, 용정 공간의 형성과정

용정(龍井) 관련 자료들에서 유독 주목되는 부분은 초창기 용정 공간의 형성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두 동네이다. 하나는 용정촌이고 다른 하나는 명동촌으로서, 이 두 동네는 용정의 기반을 다지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두 공간이다. 용정촌은 비록 명동촌보다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조선인 유이민사에서는 중요하게 언급되는 동네이다. 용정촌은 조선인 만주 이민의 첫 동네였고, 현재 확인되는 기록에 따르면 최초 용정촌이 형성된 것은 1877년 봄이다.

룡정에 처음으로 조선인들의 마을이 이루어진 때는 1877년 봄이었다. 조선 평안북도의 리재민 김언삼(金彦三), 함경북도의 리재민 장인석(張仁碩)과 박운언(朴允彦) 등 장정들이 열네세대의 토스레웃을 걸치고 쫓신을 신은 남녘로소를 거느리고 회령으로부터 두만강을 건너 삼합에 이른 다음 또 다시 와집령(즉 오랑케령)을 넘어 하루종일 걸었으나 길가에서는 인가 하나 없었다. 이 열네세대의 남녘로소들은 울창한 산림을 지나 룡도하를 따라 걷고 걸어 드디어 룡도하와 해란강 두 합수목에 이르렀다. 그들이 이른 곳이 바로 유유히 흐르는 해란강기슭의 충적평원이었다. 이 충적평원에는 키넘는 잡초가 무성하여 황량하기가 그지없었으니 보매 토지가 비옥하고 우량이 충족한 기후임을 보아낸 로농들은 농사짓기에는 더 나무랄바없는 고장으로 알아보고 행장을 풀었다.

열네세대의 남녘로소들은 합심하여 움막을 짓고 또 불을 질러 화전을 일구고 밭갈고 씨뿌려 한해 농사를 지었다. 첫농사가 유별나게 잘 되어 껍질이 터지도록 잘 염근 낱알들이 구슬마냥 영채를 띠었다. 이에 흐뭇해진 사람들은 이 땅에서 대

대손손 시름없이 살아가려고 이듬해부터 초가삼간을 짓고 퉁정땅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였다.¹³⁾

인용에서 보는바와 같이 최초 용정으로 이주한 세대는 총 14세대였고 이주 시기는 1877년 봄이었다. 이들을 칭하여 ‘이재민’이라고 한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이주의 원인은 경제적인 문제였다. 이러한 기록은 한국 유이민사의 기록과도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조선인의 만주 이주의 시초는 1860년을 전후한 시기였고 1869~1870년 조선 관북지역의 대기근을 계기로 본격적인 이주가 이루어졌다. 이주 노선을 보면, 함북 회령에서 두만강을 건너 삼함(三 ㅅ)과 오랑캐령을 넘어 간도 땅에 들어서고 있다. 이 루트를 일명 ‘회령 노선’¹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철도가 개통되기 전에 만들어진 최초의 이민의 길이었다. 조선인들이 오랑캐령을 넘어 만주 땅에 들어섰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이 바로 드넓은 용정 벌판이었다.

인용에서 보듯이 이주민들이 처음으로 짐을 풀 곳은 해랑강변의 육도구(六道溝)라는 곳이었다. 그러다 1886년 정진이란 젊은이가 여진인들이 사용했던 우물을 발견하고 그 우물을 복원하여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용두레를 설치하였다. 사람들은 그 우물을 ‘용두레 우물’이라 부르기 시작했고, 장인석이 ‘용두레’ 용(龍)자와 우물 정(井)자를 떼어서 ‘용정(龍井)’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 사용하기에 이른다. 1900년부터는 청나라 관방에서도 ‘용정’과 ‘육도구’를 같이 사용하였고 그러다 만주사변 후 정식으로 ‘육도구’ 대신에 ‘용정’이라는 이름으로 대체되었다.¹⁵⁾ 역사서나 회고록에서 지칭되고 있는 용

13) 전광하, 앞의 책, 5쪽.

14) 조선인의 만주 이주 노선은 대체적으로 세 갈래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회령 노선’이고 다른 하나는 ‘신의주-안동’, ‘남양-도문’ 노선이다. 이중 ‘신의주-안동’ 노선과 ‘남양-도문’ 노선은 압록강 철교의 개통과 도문 철교의 개통으로 새롭게 형성된 노선이다. 1911년 11월 압록강 철교의 개통은 경의선(경성-신의주)과 안봉선(안동-봉천)을 연결하게 되고 1933년 도문 철교의 개통은 경도선(신경-도문)과 도문선(도문-웅기)을 직접 연결하게 되면서 조선에서 만주로의 이동이 훨씬 편리해진다. 철도가 개통되면서는 조선인 이민들 역시 기차를 이용하여 만주로 넘어갔는데 ‘신의주-안동’ 노선의 경우는 개인적인 만주 이주의 경험들을 통해 드러났고 ‘남양-도문’ 노선의 경우는 식민지탈기의 집단 이민의 양상으로 드러났다. 북만주 이민자들 거개가 도문 철교를 이용해 만주 목단강 지역으로 흘러갔다.

정촌이 바로 이 동네인 것이다. ‘용정촌’이라는 명칭은 1908년경에도 확인이 가능하다. 『해조신문』 1908년 3월 10일자, 4월 11일자 신문에 간도와 관련된 기록에서 발견되며 같은 해 『대한매일신보』에서도 확인된다.¹⁶⁾ 1913년에는 용정촌으로의 조선인 이주가 증가하고 있어 용정촌 상부지내 조선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매일신보』에 나기도 한다.¹⁷⁾ 이처럼 조선인들 사이에서 용정촌은 이미 잘 알려진 공간이었다.

용정촌과 함께 또 하나 주목되는 대상은 명동촌이다. 당시에는 간도성 화룡현 소속이었던 이 지역은 사실 ‘용정 로컬리티’의 형성과정에서는 용정촌보다도 더 결정적인 역할을 발휘하는 지역이 된다. 명동촌 역시 앞서 살펴본 용정촌과 마찬가지로 집단 이주민에 의해 형성된 동네이다.

1899년 2월 18일, 그들은 아직도 얼음이 풀리지 않은 두만강을 건너 중국 만주로 이주하였다. 규암의 전주 김씨 집안에서 31명, 김해 김씨 소암(素岩) 김하규(金河奎) 집안에서 63명, 남평 문씨 문병규(文秉奎) 가문에서 40명, 그리고 규암의 스승 남도천(南道川, 본명은 南宗九)의 가문에서 7명 등 25세대, 안내자 및 통역관 김항덕 1명 포함 모두 142명에 달하는 대규모의 이민집단이었다. 이들은 함경북도 종성군 삼삼봉을 출발하여 용정 개산툰의 자동과 회경가, 용정시 팔도하자향 등을 거쳐 화룡현 불굴라재라는 곳에 정착하였다.

이들은 공동으로 구입한 땅 천일경을 각 가문에서 투자한 만큼씩 분재하였고, 천일경 중 10일경은 공동부담인 학전(學田)으로 남겼다. 학전이란 공부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한 땅이었다. 그만큼 이들은 이주 당시부터 학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¹⁸⁾

명동촌의 기반이 되었던 이 종성오현의 간도 이주는 여러 자서전과 회고

15) 전광하, 앞의 책, 9쪽.

16) 『日將齊藤大佐의 間島談』, 『海潮新聞』, 1908년 3월 10일자; 『北間島情形』, 『海潮新聞』, 1908년 4월 11일자; 『間島學校設行』, 『대한매일신보』, 1908년 8월 2일자.

17) 『龍井村의 朝鮮人』, 『每日申報』, 1913년 6월 14일자.

18) 서대숙, 『김약연: 간도 민족독립운동의 지도자』, 역사공간, 2017, 28~29쪽.

록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이들의 이주는 용정촌의 이주자들보다 규모가 컸고 상당히 계획적이었다. 총 25세대 142명의 이주민들은 처음부터 통역을 대동하였고 이주한 후에는 토지를 구매하고 그 일부를 교육을 위한 학전으로 사용하기로 약속하고 있는 데에서도 알 수 있다. 이들이 정착한 곳은 불골라재(혹은 부걸라재, 鳧鷓子)라는 곳이었다. 불골라재에서 규암은 장재촌(長財村), 남도천 일가는 중영촌(中英村), 김하규 일가는 대사동(大蛇洞), 문병규 일가는 동구(東溝)에 있는 경지를 일구었다. 이들은 각자 마을에 서당을 설립하여 운영했는데 규암은 장재촌에 규암재를, 김하규는 대룡동에 소암재를, 남도천 가문은 중영촌에 오룡재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 경비는 공동으로 구입한 학전(學田)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충당했다.¹⁹⁾ 그리고 1900년에 윤동주의 조부인 윤하현 일가가 규암이 있던 장재촌으로 합류한다. 이 다섯 가문은 자신들의 마을을 명동이라 불렀는데 명동은 ‘동쪽을 밝힌다’, 즉 ‘조선을 밝게 한다는 뜻’이었다.²⁰⁾ 명동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한 것은 1908년 명동학교가 세워지면서부터였다.²¹⁾

용정촌은 연이은 재해에 허덕이던 사람들이 살길 찾아 흘러들어와 형성한 동네였다면 명동촌은 용정촌과는 다르게 계획적이고 목적 지향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용정촌은 농사가 잘 된다는 소문을 듣고 조선으로부터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확장되었고, 명동촌은 먼저 이주한 사람들과의 인연으로 동네가 확장되었다. 명동촌의 사람들은 땅을 살 돈을 마련해서 간도로 이주했고 그 땅 중에서 일부를 학전으로 사용할 만큼 교육을 중시했지만 용정촌은 이러한 기반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교육중심지로서의 용정을 이끄는 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럽게 명동촌의 몫이었다. 만약 명동촌의 이러한 교육열이 없었다면 초창기 용정지역의 학교건설운동도 없었을 것이다.

19) 위의 책, 28~46쪽 참조.

20) 위의 책, 56쪽.

21) 문영규·문영미 엮음, 『기린갑이와 고만네의 꿈: 문재린, 김신목 회고록』, 삼인, 2006, 34쪽.

3. 학교건설운동과 민족교육 중심지로의 부상

용정촌과 명동촌을 중심으로 한 용정지역의 형성과 발전과정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단연 학교 설립을 통한 민족교육이었다. 사실 간도 조선인들의 교육열은 설명이 필요치 않다. 조선인들은 가는 곳마다 학교를 설립했고 학교가 만들어지면 조선에서 교사를 초빙해왔다. 일본인들까지도 조선인들은 십수호(十數戶) 정도가 모이면 먼저 학교부터 만들고 아이들 교육을 우선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할 정도였다. 1905~1929년 사이 간도지역에서 설립한 사립학교 수만 258개소에 달하는 데에서도 그 교육 열의를 확인할 수 있다.²²⁾

간도지역 최초의 신식 교육기관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은 서전서숙이다. 1906년 여름 용정으로 이주한 이상설이 구국인재를 양성하려는 뜻을 펼치고자 사재를 털어 용정촌 기독교 인사인 최병익의 집을 사서 시작한 학교가 바로 서전서숙이었다. 하지만 서전서숙은 1907년 5월 용정에 '조선 통감부 용정파출소'가 설립되면서 개교한지 8개월 만에 문을 닫게 된다. 한편 이와 때를 같이 하여 이상설 본인이 만국평화회의 밀사로 파견되면서 용정을 떠나게 되고, 학교 운영이 더 이상 어려워지자 서전서숙의 사생들이 김약연을 찾아가 방도를 의논하게 된다. 결과 당시 김약연이 운영하던 구식학당인 규암재를 정리하고 1908년 4월 27일에 김약연을 숙장으로 신식 교육을 목표로 한 새로운 기관인 명동서숙(明東書塾)을 설립하기에 이른다. 명동서숙은 설립 다음 해인 1908년 사립명동학교로 개칭되었고 1910년에는 중학부를, 1911년에는 여학부까지 설치하였는데 명동학교 여학부는 당시 간도지역에서 제일 처음으로 개설된 여성교육기관이었다.²³⁾ 명동학교는 이상설, 김약연의 건학이념을 그대로 이어받아 반일사상의 색깔이 뚜렷했다.

명동학교를 시작으로 용정을 중심으로 한 각 조선인 마을들에서는 학교들

22) 박주신, 『표: 간도지방 조선인 사립학교(1905-1929)』, 『간도한인의 민족교육운동사』, 아세아문화사, 2000, 593~603쪽 참조.

23) 리봉구, 『연변에서의 첫 신식학교: 서전서숙』, 연변정협문사자료위원회, 『연변문사자료』 5: 교육사료전집, 中國 龍井: 龍井市機關印刷廠, 1988, 1~4쪽.

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기 시작하였고 그중에서 주목할 만한 학교로 동신학교와 정동중학교, 창동학교를 꼽을 수 있다. 1905년에 창립된 동신학교는 지금의 용정 지신향 광동촌에 세워졌다. 당시는 그 마을을 채풍헌골이라고 불렀는데 이 마을에는 천주교 신자들이 많았고 그래서 일명 ‘천주교마을’이라고도 불렀다. 동신학교가 이 마을에 세워졌을 때 천주교동네의 학교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마을의 아이들 중에서는 극히 소수가 이 학교로 통학했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동신학교는 1917년에 학교를 옆 마을인 “중간 마을”로 이전하였고 경성에서 온 애국지사 윤제헌(尹濟憲)을 교사로 초빙하였다. 대종교신자였던 윤제헌은 학생들에게 대종교 교리를 강의했고 그것을 명기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다 1919년 반일시위의 여파로 학교에 대한 일본의 간섭과 항일지사들의 검거가 시작되자 윤제헌은 간도를 떠났고 1919년 겨울 동신학교는 박남준(朴南俊)을 초빙하여 원 교사에 동학(冬學)을 꾸리기 시작한다. 두 번째 동학을 마친 1921년 1월에 정식으로 복교하였다.²⁴⁾ 동신학교의 경우는 서전서숙이나 명동학교와 비교했을 때 특징이 뚜렷한 것은 아니었지만 가장 기본적인 간도 민족교육기관의 양상을 보여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교사가 대종교신자이든 기독교신자이든 교육의 중심은 항상 반일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민족주의교육에 놓여있었다. 특히 윤제헌의 경우는 비록 대종교 신자였지만 무엇보다도 반일교육을 우선시했으므로 아이들의 반일 정서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비해 정동학교의 경우는 간도 조선인의 교육열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증이라 할 수 있다. 1908년 10월 28일 지금의 용정 광개항 자동촌에서 개교한 이 학교는 반일민족 지사들이었던 강백규, 강희현, 유한풍 등이 농가한 채를 사들이고 학생 20여명을 모집하여 정동서숙(正東書塾)으로 시작한 학교이다. 1912년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고려하여 통학중심에 새로운 교사를 건축하였는데 교사 건축 기금을 모두 모금으로 해결하였다. 1913년에 정동서숙은 5년제를 실시하게 되고 학교의 이름도 정동학교로 고친다. 1914년

24) 정봉, 『동신학교 35년』, 위의 책, 5~22쪽 참조.

에는 여학부를 신설하고 1917년에는 중학부까지 신설하였다. 1918년 중학부 교사 신축문제가 언급되었고 이번에도 역시 간도지역 유지들의 후원에 의해 신축교사 완공에 성공한다. 1919년 3.13 반일 시위 때에는 학교 교원들이 중심이 되어 학생들을 이끌고 조직적으로 시위에 참여하였다. 이것이 빌미가 되어 경신년 대토벌 때에 정동학교는 일제에 의해 완전히 불살라진다. 1923년 4월 다시 기부금을 모아 새 교사를 건축하고 복교에 성공한다.²⁵⁾ 정동학교는 수많은 학교들 속에서 유일하게 시종일관 지방 유지와 주민들의 후원, 기부금에 의해 운영되었던 학교였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창동학교의 경우는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에서 촉발되어 설립된 학교로서 다른 학교와는 또 다른 출발을 보여주는 교육기관이었다. 1910년 가을 세 곳의 서당을 합쳐 용정의 장골에 학교를 꾸렸고 11월 말에 4칸짜리 기와 집을 짓고 정식으로 개학식을 거행하였다. 1914년에는 4년제를 6년제로 변경했고 3.13 반일 시위 때에도 적극적으로 앞장섰다. 경신년 대토벌을 겪으면서 창동학교 역시 잿더미가 되었지만 역시 굴하지 않고 1921년 늦봄 다시 초가 4칸을 지어 개학을 하였다.²⁶⁾ 간도 지역의 대부분 학교들이 그러하였듯이 대체적으로 강한 반일의식을 드러냈지만 그 일례로 창동학교 학생들의 놀이 중 하나였던 십진가가 상당히 기억에 남는다.

1, 일본놈, 2, 이등박문, 3, 삼천리 강산을 삼키려 날뛰다, 4, 사처로 찾아다니던 안중근이 5, 오래동안 기다리던 할빈역에서, 6, 룡혈포로 쏘넘겨놓으니, 7, 칠성구 명으로 피를 토하며, 8, 팔작팔작 죽어가는 이등을, 9, 구름같이 모인 사람들 앞에서 이등의 모가지를 디디고 만세 3창, 10, 열 번 다시 죽어도 속만 시원해라!

마지막 말이 끝날 때에는 모두 일제히 박수를 쳤다. 만약 누가 순서를 어기거나 말을 잘 받아넘기지 못하면 ‘이등’(이토히로부미-필자 주)으로 간주되어, 벌을 받아야 했다. 이 놀이도 나중에는 내놓고 놀지 못했다. 혹시 놀게되면 선생님들은 타이르는 어조로 명심들하고 하면서 슬쩍 눈을 감아주었다.²⁷⁾

25) 남병권, 「두만강 기슭의 첫 학교: 정동중학교」, 위의 책, 32~43쪽.

26) 김광희, 「창동학교의 지난날을 그리며」, 위의 책, 44~48쪽.

아이들이 안중근의 하얼빈 의거를 소재로 십진가를 만들어 놀이를 하였다는 기록이다. 창동학교의 학생들만이 이 놀이를 즐긴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당시 용정을 넘어 간도 지역에서 상당히 유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이 십진가는 당시 안중근 의거 소식을 접했을 때 민중의 솔직한 감정이 드러나고 있어 주목된다. 안중근 의사의 장거보다는 이토 히로부미의 죽음에 더없는 통쾌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용정지역 학교들의 강한 민족주의적 성향은 여타 학교들과는 성향을 달리한다. 그 일례로 양정학교를 들 수 있다. 양정학교는 사립학교로 설립되어 관립으로 편입된 조선인에 의해 설립된 특이한 학교로 주목된다. 양정학교는 1907년 3월 이동춘(李同春)이라는 조선인에 의해 용정에서 설립되었지만 1908년에 공립학당으로 편입되면서 연길현으로 이관된 학교이다. 조선 회령 출신의 이동춘은 젊은 날 중국으로 이주하여 경찰학당을 졸업한 이력을 가지고 있어 중국어에 능통했다. 그는 조선주재 청나라 대신(許大臣)의 통역관으로 조선에 있다가 중국으로 돌아간 후, 1907년 3월 용정 광제옥에 양정학당을 설립한다. 양정학당과 다른 학교들과의 차이라면 적극적인 친중(親中) 성향이다. 여타의 학교들이 민족교육에 집중하는 동안 이동춘은 학생들에게 통일 제복을 입히고 모자와 신발까지 통일시켰으며 머리를 깎게 하고 중국어를 가르쳤다. 청나라 자회태후의 생일인 ‘만수절(萬壽節)’ 축하 행사에 참여하여 적극적인 친중적인 성향을 드러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이동춘은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중국의 상급학교로 진학시키는 데에도 노력했다. 양정학당은 경신참변은 피해갔으나 만주사변 때에 잣더미가 된다.²⁸⁾

이 외 또 하나 주목되는 학교는 1917년 훈춘 대항구에 설립된 북일중학교이다. 1917년 1월에 훈춘의 대항구에 설립된 북일중학교는 이동휘가 주축이 되어 추진된 무관학교였다. 학제는 반년 혹은 1년이었고 교육 중심은 군사지식과 군사훈련, 그리고 전투 기능이었다. 학생들은 학교를 다니다가도 자유롭게 항일독립단에 가담하거나 무장투쟁에 합류할 수 있었다.²⁹⁾ 일본영사관

27) 위의 글, 75쪽.

28) 차성파, 「청나라 말기의 양정학당」, 『연변문사자료』 5, 112~155쪽.

이 자리 잡고 있는 용정에서 군사학교는 불가능했고 훈춘처럼 일본의 관할권에서 조금 벗어난 지역에서만 가능한 일이었다.

간도에서의 학교 설립은 조선인 부락이 형성되는 지역마다의 필수 사업이었고 그중에서도 이 글에서 언급하고 있는 용정지역의 학교들은 상당히 장수한 학교들이었다. 『연변문사자료 5: 교육사료전집』은 1920년 전까지의 학교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름을 올리고 있는 학교들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서전서숙(1906, 용정, 1908년 명동학교로 개칭), 동신학교(1905, 용정), 동창학원(1908, 연길), 정동중학교(1908, 용정), 창동학교(1910, 용정), 부산소학교(1904, 연길, 공립), 양정학당(1907, 용정), 북일중학교(1917, 훈춘)를 비롯한 8개 소의 학교 중 5개 학교가 용정에서 설립되었고 그 규모 또한 상당했음을 알 수 있다. 학교를 설립했으나 운영이 어려워 금방 문을 닫은 학교까지 계산하자면 통계가 불가능할 정도다. 또한 민족교육기관으로서의 조선인 학교는 한족교육기관보다도 상당히 앞섰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용정지역 가장 처음으로 설립된 한족학교는 1915년 3월에야 개교한 동산소학교였다.³⁰⁾ 최초의 조선인 신식학교인 명동학교가 1908년임을 생각할 때 조선인 민족교육기관의 선도성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바 용정은 간도지역의 중심지였다. 특히 교육 영역에서 앞서갔던 용정지역은 학교들이 밀집한 곳이기도 했고 이러한 교육환경이 3.13 반일시위로 이끌 수 있었던 것이다. 학교의 설립은 반일사상을 고취시키고 독립이념을 강화하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문화, 종교적인 영역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단행했다. 특히 기독교의 전파에 있어서 용정의 학교들은 남다른 역할을 발휘하게 된다.

4. ‘영국더기’와 ‘명동학교’, 기독교의 유입과 전파

용정지역은 다른 종교들보다도 특히 기독교의 전파가 눈에 띄는 지역이다.

29) 강석훈 구술, 강월송 정리, 『내가 다닌 북일중학교』, 위의 책, 201~208쪽.

30) 조보급·기요립, 『해방전 룡정지구 한족교육 개황』, 위의 책, 196쪽.

천도교, 천주교, 불교 등 여러 종교들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기독교의 세력이 강했던 지역이다. 용정지역의 기독교의 세력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아마도 ‘영국더기’³¹⁾와 ‘제창병원’이 아닐까한다. 용정 3.13 시위 때 제창병원이 발휘한 중요한 역할은 많은 논문들에서도 주목하였고 그 의의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명은 주로 독립운동사나 민족운동의 맥락에서 제한적으로 조명된 아쉬움이 없지 않다.

주지하는바 캐나다 선교사가 만주 용정으로 가게 된 데에는 오래된 연원이 있다. 캐나다 장로회가 조선 선교를 결정한 데에는 맥켄지(W. J. McKenzie, 梅見施, 金牧師) 선교사의 죽음의 영향이 컸다. 독립선교사로 한국 황해도 장연에 와 혼신을 다해 조선교회의 토착화를 위해 주력한 맥켄지는 과로와 풍토병으로 시달리다가 한국에 온지 3년이 채 안 된 1895년 6월 숨을 거두었다. 이로 인하여 캐나다 장로교회는 조선 선교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1897년 10월 7일 캐나다 동부지역교회연합회인 매리타임 노회가 한국선교를 결정한다. 1898년 구레슨(Robert Grierson, 具禮孫) 목사 부부를 비롯한 부두일(W.R. Foot, 富斗一) 목사 부부, 마구레(D.M. Mc Rae, 馬具禮) 목사 등 5인이 첫 선교사로 한국에 오게 되었다. 1898년 11월 부두일 목사 부부가 원산에 도착하여 미국 북장로회로부터 교회와 교육기관을 인수함으로써 선교활동이 시작되었다. 1902년 구레선이 직접 간도와 연해주를 답사하고 한·청·러 삼국전도회를 조직하기로 결심하였다. 1906년에는 영수 구춘선과 집사 이보권을 중심으로 용정교회를 설립함으로써 북간도 기독교 전도의 근거지로 만들었다.³²⁾ 그리고 1913년 6월 바커 선교사 부부가 용

31) ‘영국더기’는 흔히 ‘영국덕’ 또는 ‘영국테기’라고 칭해지는데 주로 1930~40년대 만주관련 소설 속에서 많이 등장한다. 이 이름의 유래는 영국 국기와 관련된다. 주지하는바 용정은 캐나다의 선교기지 개척으로 교회가 설립되었던 곳이고 의료선교가 병행되었던 교장이다. 북간도 의료선교의 일환으로 설립되었던 의료기관이 제창병원이었고, 제창병원이 설립되었던 곳이 용정 동산이다. 선교사이자 의사였던 마틴(S. H. Martin; 閔山海) 부부가 1916년에 용정에 부임하면서 제창병원 창공에 들어갔고 병원이 완공된 것은 1918년이다. 마틴은 캐나다선교회 소속이었지만 국적은 영국이었다. 그는 교회나 병원 밖에 항상 영국 국기를 내걸었는데 이것이 계기가 되어 사람들이 교회와 제창병원이 자리 잡고 있었던 용정 동산을 ‘영국더기’, ‘영국덕’, ‘영국테기’라 부르기 시작하였다.

32) 은진중학교 동문회, 『恩眞: 영국덕의 새문화』, 『恩眞 80年史: 北間島의 셋별』, 코람데오, 2002, 70~72쪽.

정으로 이주하면서 캐나다장로회 한국선교부의 용정지부가 설립되었다. 1916년에 의료선교사로 마틴(S. H. Martin; 閔山海) 부부가 부임하면서 제창병원 착공에 들어갔고 1918년에 완공되었다.³³⁾ 이러한 캐나다장로회의 간도 선교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구들에서도 더러 언급되었다. 본고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캐나다장로회의 간도지역 선교와 별도로 자생적으로 성장한 교회세력의 확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김약연의 기록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지금부터 30년 전 즉 주후 1907년이 곧 간도에 복음이 처음 들어온 해이다. 대개 간도에서 용정은 마치 사도시대의 수리아, 안디옥 같은 곳으로서 간도복음의 발상지라 할 것이니 즉 1907년에 감리회편으로는 이화춘 이용현 양씨가 용정에 드러와 지금 야소교 서원 자리에 서사를 열고 성경을 팔기 시작했으며 장로회편으로는 함북 성진 안순영씨와 평남 숙천 교인 장재연씨가 이해에 또 종교의 깊은 뜻을 품고 두만강을 건너 용정에 오게 된 것이다. 이 4인이 함께 만나매 교파 분별이 없이 서로 모혀 야소교서원 집에서 가치 예배하며 전도하였으니 이것이 간도 전도의 시작이다. 이로써 용정 이북 모이산 교회는 이화춘씨의 전도로 창설되었고 용정 이남 양무정교회는 안순영씨의 전도로 설립되었으며 명동교회는 정재면씨의 전도로 그 기초가 선 것이다.³⁴⁾

짧은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간도지역에 처음으로 기독교 선교가 시작된 곳은 역시 용정이었다. 감리회와 장로회가 거의 동시에 용정지역으로 들어왔고 각자의 교회를 설립하는 데에 성공한다.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주목되는 명동교회에 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용정지역의 기독교 전파에 있어서 명동교회가 단행한 역할은 높이 평가되어 마땅하다. 기독교 전파의 중심에 명동학교와 명동교회가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명

33) 김승태, 앞의 글, 12~13쪽.

34) 김약연, 『동만노회 30주년 역사』, 서광일·김재홍 지음, 『북간도 민족운동의 선구자 圭巖 金羅淵先生』, 고려글방, 1997, 237쪽.

동학교는 서전서숙에서 출발한 학교였고 간도지역에서 가장 처음으로 여성 교육기관을 설립한 학교이기도 하다. 또한 명동학교는 순수한 민족교육기관에서 출발하여 기독교학교로의 변천을 겪어온 학교라는 데에서도 주목을 요하는 대상이다. 그리고 명동학교의 이와 같은 변화의 중심에는 정재면이라는 인물이 있었다.

1909년 5월이 되어서야 박무림 숙장의 추천으로 25세 청년지사 정병태(본명 정재면) 선생이 왔다. 신하가자 정대위 박사의 부친 되는 정 선생은 1884년 생으로, 서울 상동청년학원에서 기독교와 민족의식을 바탕으로 근대 학문을 익힌 분이다. 그는 안창호 같은 지사들이 1907년에 만든 독립운동단체 ‘신민회’에서 북간도 용정으로 파견되어 서전서숙을 다시 일으키려 했으나, 불가능하게 되자 명동학교를 눈여겨보았던 것이다. 그런데 교사가 되어 달라는 간청을 받고 정 선생은 어려운 조건 하나를 내걸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함께 예배 보는 것을 허락하면 교사로 부임하겠습니다”는 것이었다.³⁵⁾

김약연의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명동교회는 정재면의 선교에 의해 설립된 교회였다. 인용문은 그 과정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소중한 기록이다. 인용에서 보듯이 1909년 5월 명동학교는 교사로 정재면을 초빙한다. 그런데 정재면은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 보는 것을 허락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25세의 젊은 정재면은 상동청년회 회원이었고 상동교회 교인이기도 했다.³⁶⁾ 기독교신자였던 그는 명동학교에서의 기독교 선교를 목적으로 있었다. 교사 초빙이 어려웠던 당시, 명동학교는 결국 정재면의 조건을 받아들이고 그를 교사로 초빙한다. 정재면이 초빙되고 나서부터 명동학교에서는 예배를 드리게 되고 찬송가를 배우게 된다. 그렇게 8개월 여를 보내다가 일 년이 채 안 되어 그해 연말 즈음 정재면은 돌연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35) 문영금·문영미, 앞의 책, 44쪽.

36) 한규무, 『1900년대 서울지역 기독교회와 민족운동의 동향: 정동·상동·영동교회를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9, 한국민족운동사학회, 1998.

표시한다. “예배에 학교의 당국자는 참석하지 않고 학생들이만 나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으므로 사임하겠다”(45)는 것이었다. 정재면을 원했던 명동학교는 또 다시 그의 조건을 수락하게 되고 이것이 결국에는 흔히 명동의 주역들로 칭해지는 김약연, 문병규, 남도천, 김하규, 윤하현 등이 기독교에 귀의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그로부터 1년 후인 1911년 문재린은 할아버지, 아버지와 함께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된다. 당시 김약연은 세례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진다. 김약연은 기독교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수 없다고 하였지만 목사와의 대화에서 기독교에 대한 그의 인식을 확인한 목사가 세례 문답 없이 세례를 주었다고 알려진다. 김약연의 기독교 입교는 간도지방 민족지도자들의 집단 개종을 초래하였다고 평가될 만큼 비중 있는 행보였다. 결국 명동촌의 주역들은 모두 기독교를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이것을 문재린은 “오룡천 실험과 학자들의 열린 자세였다”(45)고 회고하고 있다. 김약연을 비롯한 명동지역 사람들의 단체 입교는 간도지역에서 꽤 큰 영향력을 발휘한 것임에 틀림없다. 적어도 명동촌에서는 김약연 선생도 기독교를 믿으니 안심해도 되겠다는 그런 대중심리가 형성되면서 명동교회는 장족의 발전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시기를 전후하여 이동회의 연설도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1910년 8월 3일 한일병합 반대 혐의로 체포되었다가 8월 29일 경술국치 이후 석방된 이동회는 그리어슨 목사의 도움 밑에 기독교를 통한 항일계몽운동에 주력하게 된다. 1911년 1월 김철, 오상언을 대동하고 성진을 출발, 회령에서 5일 동안 기독교를 통한 계몽운동을 전개하고 북간도에 도착한다. 1911년 2월에는 북간도 방문을 계기로 이동회는 기독교인 200명이 모인 곳에서 전도총회를 개최하였다.³⁷⁾ 이 전도총회에서의 이동회의 연설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독교인이 많이 늘었을 뿐만 아니라 이동회의 이 연설은 문재린 등의 회고록에서도 상당히 인상

37) 김방, 『이동회: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역사공간, 2013, 45~46쪽.

깊고 훌륭했던 연설로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용정지역 기독교의 전파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유입되고 전파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캐나다장로회 선교부에서 용정에 선교본부를 설립 하면서 용정은 명실상부한 간도의 기독교 전파의 중심지가 되었고 다른 하나는 이동휘 등을 비롯한 애국지사들의 기독교 입교와 그들의 선교 연설이 대중들을 감화시키고 선동하기에 충분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명동교회의 설립은 이러한 외부적인 영향과는 별개로 정재면이라는 인물에 의해 조용하고 강력하게 진행되었던 것이 특히 인상 깊다. 이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구들에서도 거의 주목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다. 특히 학교를 통한 기독교의 전파라는 측면은 용정지역 기독교 수용과 전파의 중요한 특징으로 간주할 수 있는 부분이다. 기독교의 전파는 민족운동을 가능하게 했던 중요한 환경 또는 요건으로 인식되었고 기독교 입교 역시 민족운동을 위한 선택으로, 또는 한인사회 통합을 위한 수단으로 해석되었던 측면이 없지 않다.³⁸⁾ 그러나 끝까지 독실한 기독교 신자의 길을 걸었던 김약연과 증도에 기독교를 포기하고 사회주의자의 길을 택한 이동휘의 경우를 생각할 때 이러한 해석에는 또 다른 해석의 여지가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용정은 내외부적인 기독교 사상의 수용과 전파에서도 중요한 중간자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 맺음말

이상 살펴보았듯이 용정은 그 형성과정부터 남다른 역사를 품고 있는 유서 깊은 고장이다. 용정은 ‘용정촌’과 ‘명동촌’을 중심으로 확장되면서 용정의 독특한 로컬리티를 형성해 갔던 지역이다. ‘용정촌’은 조선인 이민사에서

38) 북간도에 있어서 민족운동은 기독교를 바탕으로 전개되었으므로 기독교의 선교가 용이했고, 한인들은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기독교에 입교했으며, 또한 민주주의자들은 교회 조직을 기반으로 한인사회를 통합하였다(서광일, 『일제하 북간도지역 민족운동과 기독교(1906~1920)』, 『북간도지역 한인민족운동』, 역사공간, 2008, 289쪽).

조선이주민의 첫 동네였다는 기념비적인 의미를 지니는 지역이었고 '용정'이라는 지명 역시 이주 조선인들에 의해 지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용정촌'은 연이은 재해를 피해 만주로 이주한 피난민들이 주축이 되어 형성되었던 고장이었고 농사가 잘 된다는 소문이 나면서 조선에서 이주민들이 모여들어 동네가 확장된 지역이기도 하다. 이에 반해 '명동촌'의 경우는 그 이주부터가 특징적이다. 25세대 식솔과 통역까지를 대동한 대규모 집단이민이었고 이들은 이주 후 땅을 사들였고 그 일부를 학전으로 사용할 만큼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돋보였던 집단이었다. 뿐만 아니라 '조선을 밝게 한다'는 의미를 담은 '명동'이라는 그 이름에서도 정치적인 지향과 포부를 읽어낼 수 있었다. 이러한 교육을 중시하는 태도와 이념은 훗날 용정이 민족교육의 중심지로 거듭나는 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최초의 신식교육기관인 명동학교의 전신인 서전서숙이 명동촌에서 만들어졌고 이러한 시작은 용정 각지에 학교 건설운동의 시초를 마련하게 된다. 서전서숙을 시작으로 하여 동신학교, 창동학원, 정동중학교, 창동학교 등을 비롯한 다수의 학교들이 설립되었고 학교는 독립의지를 강화하고 민족적 정신을 투철하게 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넘어 새로운 사상과 이념, 종교를 수용하고 전파하는 창구로서의 역할도 병행했다. 특히 명동학교를 통한 기독교의 수용과 전파는 이러한 학교의 역할을 그대로 제시하고 있다.

용정지역은 민족교육의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기독교 수용의 중심지이기도 했다. 용정지역의 기독교 수용 양상을 보면 대체적으로 내외부에서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외부적으로는 캐나다 선교본부의 후원에 의해 만들어진 용정 선교지부의 설립이었고 다른 하나는 용정의 명동학교를 중심으로 한 정재면 주도하에 이루어진 명동촌의 집단 기독교 수용이다. 명동촌의 집단 기독교 입교가 중요한 것은 명동을 대표하는 김약연을 비롯한 존경받는 인물들의 주도적인 역할로 하여 기독교의 전파가 더욱 용이하고 활발해졌다는 점이다. 이처럼 용정은 교육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비롯한 외래 문물의 수용과 전파의 핵심지역이기도 했다.

기존의 연구에서 용정은 북간도의 위상에 가려 제대로 조명 받지 못했다.

특히 독립운동사 연구에서 용정은 그저 북간도의 한 부분으로 취급되었을 뿐, ‘독립운동의 성지 북간도’라는 인식 속에 가려져있어 독립적인 공간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본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3.1운동 전 용정은 ‘용정촌’과 ‘명동촌’을 중심으로 확장되었던 민족교육의 중심지였고 기독교 수용과 전파의 통로였으며 무엇보다도 민족의 자주독립을 고취했던 교육·투쟁의 공간이자 민족 정체성의 장소였다. 이러한 용정의 사상적, 문화적, 교육적 환경이 3.13 반일시위를 이끌게 하였으며 3.1운동 후 용정은 사회주의 사상을 급진적으로 수용하면서 1920년대의 ‘붉은 용정’으로 다시 거듭나게 된다.

■ 참고문헌

1. 자료

政協延邊朝鮮族自治州委員會 文史資料委員會, 『延邊文史資料』 5~6, 8: 教育史料全集, 中國 龍井: 龍井市機關印刷廠, 1988.

2. 단행본

김방, 『이동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역사공간, 2013.

문영금·문영미 엮음, 『기린갑이와 고만네의 꿈: 문재린, 김신목 회고록』, 삼인, 2006.

박주신, 『간도한인의 민족교육운동사』, 아세아문화사, 2000.

서광일·김재홍 지음, 『북간도 민족운동의 선구자 圭巖 金躍淵先生』, 고려글방, 1997.

서대숙, 『김약연: 간도 민족독립운동의 지도자』, 역사공간, 2017.

은진중학교 동문회, 『恩眞 80年史: 北間島의 섯별』, 코람데오, 2002.

전광하 편저, 『세월속의 룡정』, 중국 연길: 연변인민출판사, 2000.

현규환, 『한국 유이민사』, 어문각, 1967.

3. 논문

김승태, 『캐나다 장로회의 의료선교: 용정 제창병원을 중심으로』, 『延世醫史學』 제14권제2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사학과, 2011.

김시덕, 『사진과 회고로 보는 1900년대 전반기 북간도 한인의 장례문화』, 『민속학연구』 42, 국립민속박물관, 2018.

김주용, 『1920년대 전반기 북간도지역 학생운동의 양상』, 『한국근현대사연구』 51, 한국근현대사학회, 2009.

김태국, 『1920년대 용정의 사회 문화 환경과 중학교 설립운동』, 『송실사학』 25, 송실사학회, 2010.

문백란, 『1920년대 이후 용정 주재 캐나다 선교사들의 활동과 문재린 목사』, 『동방학지』 180,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7.

潘炳律, 『간도(間島) 15만원 사건의 재해석』, 『역사문화연구』 12,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00.

서광일, 『일제하 북간도지역 민족운동과 기독교(1906~1920)』, 『북간도지역 한인민족운동』, 역사공간, 2008.

안장원, 『용정 (3.13) 운동에 대한 탐구』, 『동포논총』 3, 경북대학교 재외동포연구소, 1999.

윤병석, 『북간도 용정 3.13운동과 「조선독립선언서포고문」』, 『사학지』 31, 단국사학회, 1998.

천춘화, 『한국 근대소설에 나타난 만주 공간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최문식, 『반일 무장 독립 투쟁의 최고봉: 1920』, 『인문논총』, 경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6.

한규무, 『1900년대 서울지역 기독교회와 민족운동의 동향: 정동·상동·영동교회를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9, 한국민족운동사학회, 1998.

Formation Process of ‘Longjing (Yongjung) Locality’

–Focusing on the formation process of Longjing (Yongjung) space and
the inflow of the thought and religion –

Qian Chunhua*

The center of Joseon People’s society in Manchuria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period was Gando, and the capital of Gando was Longjing (Yongjung). However the stature of Longjing (Yongjung) hardly gained attention, and it was recognized very limitedly, as study on the end of the Japanese colonial rule period became invigorated in the 2000s. This paper aimed to examine the local characteristics of Longjing (Yongjung) from the aspect of Longjing (Yongjung) locality. In terms of space, Longjing (Yongjung) started to be gradually formed, centered on Longjing (Yongjung) Village and Myongdong Village during the end of the 19C and early 20C. The school construction movement that began in the 1900s reinvigorated Longjing (Yongjung) as the national education hub of Manchuria. Schools not only became the center of nationalism education, but worked as a major channel for acceptance of Christianity. Myongdong School was an important source of acceptance and spread of Christianity in North Gando. Longjing (Yongjung), where national consciousness and Christian thought almost simultaneously flew into by the 1910s, was a space of educational struggle that inspired national

* Soongsil University Institute for Korean Christianity Culture/Research Professor

independence and a place of national identity.

Key words: Longjing (Yongjung), Longjing (Yongjung) locality, Longjing (Yongjung) Village, Myongdong Village, National education, Christianity

